

보도 자료

보도 일시	2025. 11. 05.(수) (배포 후 즉시)	배포 일시	2025. 11. 05.(수)
담당부서	(재)그린패트롤국제환경기술연구원	이 사 장	김 조 천 02-450-0634
		사무국장	정 석 철 02-455-0260
	대한불교 화엄종	원장스님	화응스님 032-429-4444
		이 사	강 일 승
	건국대학교 국제기후환경연구센터	교 수	정 권 02-450-0635
	(주)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이사	김 진 수 031-978-8342
부 사 장		성 하 징	

“이끼가 도시를 살린다”

- 화엄종 · 건국대 · 그린패트롤국제환경기술연구원 · 랜드아키생태조경 4개 기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2025년 11월 5일, 대한불교 화엄종 약사사와 건국대학교 국제기후환경연구센터, (재)그린패트롤국제환경기술연구원(GPTF), (주)랜드아키생태조경은 이끼 산업의 융합·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건국대학교에서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하여 이끼를 활용한 친환경 기술개발 및 실질적인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국대와 그린패트롤국제환경기술연구원은 이끼 재배, 생산 기술 및 탄소 흡수량 측정(MRV)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이끼 산업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화엄종 약사사는 사찰 내 유희 부지를 탄소중립 이끼 농장'으로 제공하여 연구 및 재배 기술의 현장 적용과 실증을 지원한다.

- 랜드아키생태조경은 개발된 이끼 기술을 활용해 도시 미세먼지 저감, 실내 공기 정화, 옥상녹화사업 등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에 적용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화엄종 화응 원장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명 존중과 환경 보호 불 실천하는 데 대학과의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약사사가 단 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친환경 사찰로 거듭나도 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올해 안에 약사사 건물 옥상에 이끼 정원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와 협력하여 이끼기반의 옥상녹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협약은 종교계,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끼를 활용한 녹색기술의 사회적 확산과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 : 공동업무협약식 사진 1부.



이끼 산업 융합·발전과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장 사진
(2025. 11. 05(수), 건국대학교)



이끼 산업 융합·발전과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장 사진
(2025. 11. 05(수), 건국대학교)



이끼의 옥상열 저감 및 탄소저감 효과 실증화 시스템 설치 현장 참관
(2025. 11. 05(수), 건국대학교)
※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이끼의 옥상열 저감 및 탄소저감 효과 실증화 시스템 설치 현장 참관
 (2025. 11. 05(수), 건국대학교)
 ※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이끼의 옥상열 저감 및 탄소저감 효과 실증화 시스템 설치 현장 참관
 (2025. 11. 05(수), 건국대학교)
 ※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임